

셀트리온헬스케어, 유럽 출격 완료

‘허쥬마’로 8兆 시장 접수 나선다

〈유방암 등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트룩시마 이어 세번째로
유럽의약품청 판매 허가 획득
2분기부터 주요의약품 입찰 참여
투여시간 단축하는 임상도 진행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사진)의 유럽 론칭 준비를 완료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멘디파마, 컨파마, 오리온 등 기존 ‘램시마’(성분명 인플리시맙) 및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의 유럽 지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허쥬마’의 유통 계약 체결을 마무리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트너사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허쥬마’의 판매를 담당한다.

유방암과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허쥬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이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셀트리온의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지난 2월 EMA(유럽 의약품청)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허쥬마의 오리자널 의약품인 ‘허셉틴’은 연간 약 8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유럽의 시장 규모는 약 2조 4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파트너사들은 ‘램시마’·‘트룩시마’의 유럽 론칭 및 유통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약가 등재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시작되는 유럽 국가들의 주요 의약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2분기 중 유럽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5개국에서 ‘허쥬마’ 론칭을 마무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세일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의 투여시간을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래피드 인퓨전(Rapid Infusion)’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래피드

인퓨전”이 가격과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오리자널 대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성을 개선해 ‘허쥬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제품 선호도를 높여 ‘허쥬마’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론칭 초기부터 빠르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리차드 트롤로프 먼디파마 바이오시밀러 사업 총괄 책임자는 “허쥬마 공급을 통해 유럽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허쥬마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유통 네트워크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축적된 마케팅 노하우는 ‘허쥬마’의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허쥬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허쥬마’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을 위해 3월 초부터 두 달여 간의 일정으로 유럽 각국을 순회하며 파트너사의 판매 전략을 짐작하고, 주요 정부관계자 및 주요 의료진을 만나는 등 현장 밀착형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술술 넘어가는 외식브랜드 뛴다

청담이상 시그니처 사케 인기
청춘뒷고기 가성비 좋은 돼지고기
피자마루 가족 메뉴로 제격
강촌식닭갈비 이색 닭갈비 일품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을 위한 외식업체들이 눈길을 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 된 것이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당장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된다. 몇 개월 후면 많은 직장인들에게 저녁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을 챙기지 못했던 것 이 현실이었다. 이제 저녁을 둘러받게 된 많은 직장인들은 가족, 친구, 연인 등 지인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외식업체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자카야 브랜드 ‘청담이상’은 프라 이빗한 룸구조와 일본풍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사랑 받고 있다. 다다미방을 재현한 룸 구조는 고객들이 옆 테이블에 방해 받지 않고 본인들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덕분에 사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소개팅 등 정말 프라이버시 가 중요한 모임에도 제격인 장소로 통하고 있다. 청담이상만의 시그니처 사케와 100여 가지의 프리미엄 일식 메뉴는 청담이상의 재방문률을 높이는 1등 공신으로 통하고 있다.

뒷고기 전문점 ‘청춘뒷고기’는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뒷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다. 뒷고기는 주로 데지의 머리부위에 있는 살들을 의미한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뒷고기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로 한 번 먹어보면 반할 수 밖에 없는 맛을 자랑한다. 거기다 청춘뒷고기는 모든 부위

를 맛 볼 수 있는 모둠 한판을 2만원대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가족단위나 많은 인원의 모임인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바쁜 회사 일로 저녁 시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로 함께하는 시간을 추천한다. ‘피자마루’의 피자는 건강한 재료에 대

한 고집으로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피자마루만의 건강한 맛에는 ‘그린티웰빙도우’와 ‘자연산 토핑치즈’에 주목해야 한



/강촌식닭갈비▶

다. 그린티 웰빙도우는 녹차, 클로렐라 등 10여 가지의 천연잡곡으로 반죽해도 우로서는 최초로 특허까지 받았다. 여기에 100% 자연산 치즈가 더해져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피자의 맛을 자랑한다.

강촌식 닭갈비를 즐길 수 있는 ‘강촌 닭갈비’는 짧음의 대명사 ‘강촌’의 풋풋함을 담아낸 브랜드이다. 강촌 하면 떠오르는 MT와 짧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강촌닭갈비는 3가지 소스에 11가지 토핑을 더한 풍부한 맛의 닭갈비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크림새우닭갈비, 고추장크림닭갈비, 쭈쭈미닭갈비 등 기존의 닭갈비를 넘어 퓨전 닭갈비 요리메뉴들이 준비돼 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막국수, 감자전 등의 사이드 메뉴도 이곳의 별미이다.

김동현 창업디렉터는 “드디어 실현되는 저녁이 있는 삶의 현실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며 “저녁 시간이 확보된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외식업체의 발 빠른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한수원, 발굴부터 창업까지 돋는 ‘사내벤처’ 육성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고 약 1개월간의 사업계획 공모와 2차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 11개 과제 중 ‘3D 프린팅 활용 증기발생기고형슬러지 제거장비 개발’과 ‘드림(방호방진) 마스크 개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한수원 사내벤처 제도는 공기업 최초로 ‘발굴-육성-사업화-창업’까지 단계별 활동을 보장한다. 이번 협약 체결 과제에는 총 3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한다. 업무협약식에서 한수원 전영택 사장직 무대행(왼쪽 세번째)이 사내벤처 선정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구직자 10명 중 9명 “中企 취업 의향 있다”

희망연봉 2847만원, 작년보다 줄어

올해 상반기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중소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2847만 원으로 작년 하반기 조사보다 262만원 적은 것으로, 상반기 취업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사람인이 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물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입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일이 맞으면 규모는 관계없어서’가 40.3% (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괜찮은 알짜 기업도 많아서’(30.3%),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29.4%), ‘자격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28.8%),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22.1%), ‘대기업 등에 취업이 어려워서’(20%) 등이 있었다.

입사할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연봉’(33.8%, 복수응답)과 ‘출퇴근 거리’(33.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33.5%), ‘안정성’(32.4%), ‘성장

가능성’(26.2%), ‘조직문화’(21.5%), ‘직무’(19.4%), ‘합격 가능성’(14.7%) 등의 순이었다.

희망연봉은 평균 2847만원으로 집계 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조사 결과(3100만원)보다 262만원 적은 것으로, 상반기 취업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입사 의향이 있는 구직자 중 약 절반에 달하는 47.1%는 경력을 쌓은 뒤 이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예상 재직기간은 평균 2.8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년’(34.4%), ‘3년’(31.9%), ‘1년’(15%), ‘5년’(10.6%), ‘4년’(3.1%) 등으로 약 10명 중 9명은 3년 이내 이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4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채용공고 내용 부실’

‘채용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함’, ‘성별, 연령 등 차별 조항 있음’, ‘지원 후 결과 확인 어려움’, ‘후기, 족보 등 채용 전형별 정보 부족’ 등이 꼽혔다. /한용수 기자



2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비타민 C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모습. /광동제약

“비타민C,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 톡톡”

광동제약 ‘비타민C 국제 심포지엄’

비타민C가 체내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하고 고혈압, 치매, 골다공증, 패혈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외 의료 및 식품과학 연구자들은 20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비타민 C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2008년 제1회 행사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비타민 C가 갖고 있는 질병 예방 및 항피로 효과 등을 통해 평소 건강 유지를 돋고 노년기에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의 프레드 스티븐스 교수는 ‘질산염

내성 예방을 위한 비타민 C 보충’이라는 주제로 비타민 C가 체내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심증과 심부전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글리세릴 트리니트레이트(GTN)가 유발하는 질산염 내성에 대해 비타민 C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스티븐스 교수는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저렴한 인체 내 질산염 내성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호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 교수는 ‘비타민 C가 본래성 고혈압 쥐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비타민 C의 혈압 강하 효과를 발표해 주목 받았다. 박 교수는 본래성 고혈압 쥐에게 10주간 비타민 C를 투여해 수축기와 이완기 모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확인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